

실증이 곧 경쟁력...광주, 스타트업 성장 사다리 놓다

지역거점 창업도시 광주

광주가 지역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검증하는 거대한 실험실(테스트베드)로 변모하고 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상용화 실적(레퍼런스)이 없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던 창업기업들이 광주 도심 곳곳에서 자사 제품을 실증하며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가 추진 중인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이 기업들의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을 돕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 사업은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장소와 비용을 지원해 제품의 성능을 검증하고 판로 개척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주)인프라엑스'와 '(주)크랩스'는 각각 도시 안전과 인공지능(AI) 콘텐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1억원의 실증 비용을 지원받은 (주)인프라엑스(대표 김중남)는 인공지능 기반의 도로 위험 검증 및 예측 모니터링 플랫폼인 '도로파인'을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버스과 관용차 등 차량에 단말기를 부착해 주행 중 포트홀(도로 파임), 균열, 낙하물 등 도로 위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탐지한다.

인프라엑스는 이번 실증을 위해 광주 시내버스인 대원버스 2대를 비롯해 시청과 광산구청, 동구청의 관용차 및 작업 차량 등 총 20여 대의 차량에 시스템을 장착하고 광주 전역을 누볐다. 그 결과 1만 건 이상의 도로 주행 및 위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이 기술은 촬영된 영상을 클라우드에 보내 분석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단말기 자체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적용해 탐지 속도와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김중남 대표는 실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의 도로 유지보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에는 침수나 결빙 같은 재난 안전 위험 요소까지 예측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3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주)크랩스(대표 김태영)는 'AI 에이전트' 기술을 활용한 숏폼(짧은 영상) 자동 제작 솔루션으로 콘텐츠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크랩스의 솔루션은 단순히 영상을 자르고 붙이는 편집 도구를 넘어, 긴 영상의 맥락을 AI가 스스로 이해하고 핵심 장면을 추출해 자동으로 숏폼을 제작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크랩스는 이번 실증 기간 동안 광주 특화 숏폼 콘텐츠 4000건 이상을 제작하며 기술의 안정성을 검증했다.

성과는 대기업과의 협업으로 이어졌다. GS리테일 흡소핑 방송 원본을 하이라이트로 요약하는 기술 검증(PoC)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기존 19단계에 달하던 제작 공정을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삼성전자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C랩 아웃사이드'에도 선정되며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크랩스 관계자는 이번 실증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홍보 영상을 제작 지원하며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는 방송사 낱개 뉴스 자동 제작 등 공공 및 미디어 분야로 사업 영역

광주테크노파크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7년 이내 창업기업 성장 지원

인프라엑스, 도로 파손 탐지 '도로지킴이'·크랩스, 숏폼 자동제작 기술 등 성과



영상 이해 원천기술 기반 쇼폼 자동 제작 AI 프로듀서 개발



김태영 크랩스 대표



클립아트코리아



김중남 인프라엑스 대표



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실증지원사업은 기업에는 기술 검증의 기회를, 시민에게는 혁신 기술을 미리 체험할 기회를 제공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의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혁신 기술을 검증 중인 창업기업 (주)크랩스의 인공지능 기반 숏폼 자동 제작 솔루션 체계도

▲시내버스에 단말기를 부착해 도로 위험 요소 등 위험 요소를 실시간 탐지하는 (주)인프라엑스의 실증 현장 모습.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한다"며 "앞으로도 광주가 기업 하기 좋은 '실증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은 3월부터 올해 2월

까지 12개월간 진행되며, 자율형, 솔루션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 총 46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교통 관문'서 AI 실리콘밸리 품은 '창업 전진기지'로

정부 '벤처 4대 강국' 비수도권 창업허브 본격화...2027년까지 거점 3곳 조성

광주역 창업밸리, AI 융합·정주여건 갖춘 최적지 평가...호남 유니콘 육성 기대

정부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비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창업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시가 유력한 후보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을 필두로 한 탄탄한 인프라와 광주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구상하는 '지역 거점 창업도시' 모델과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광주가 한국판 스타이션 F의 깃발을 꽂고 지방 시대를 선도하는 창업 수도로 비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벤처·스타트업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27년까지 3곳의 지역 거점 창업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는 수도권에 편중된 창업 인프라를 지방으로 확산시켜 프랑스의 '스타이션 F'나 서울의 '스페이스 K'와 같은 글로벌 수준의 창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번 공모에서 단순한 창업 공간 구축을 넘어 주거와 문화, 상업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허브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앵커 기업과 스타트업이 공존하며 지역의 특화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을 핵심 선정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광주시는 '준비된 창업 도시'라는 점을 내세우며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가 제안하는 핵심 거점은 '광주역 창업밸리'다. 호남권 교통의 관문인 광주역 일대는 이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창업 기업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곳을 호남권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창업 메카로 완성하기 위해 정부의 '지역 거점 창업도시(커뮤니티 스타트업 허브)' 지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광주역 창업밸리에 국비 200억원 등 총 340억원을 투입해 스타트업 파크와 지식산업센터 등 하드웨어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닥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실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

광주가 내세우는 가장 큰 경쟁력은 단연 'AI'다. 광주는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 AI 집적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기술 창업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창업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 검증과 실증이 도심 전역에서 가능하며 이를 뒷받침할 5000억 원 규모의 창업 펀드도 운용 중이다.

실제 성과도 뚜렷하다. 광주시의 지원을 받은 창업 기업들은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5'에서 6개의 혁신상을 휩쓸었고 전년도에는 13개 기업이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 중 최고 수준으로 광주의 창업 지원 시스템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풍부한 청년 인재풀 또한 광주의 강점이다. 지역 내 19개 대학에서 매년 우수한 인재가 배출되고 있으며 광주는 7대 특광역시 중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젊은 도시'로 꼽힌다. 중기부가 이번 공모 요건으로 제시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배후 지역'과 '대학 및 연구소 밀집 지역'이라는 조건에 광주만큼 부합하는 곳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여기에 지역의 창업 의지 또한 뜨겁다. 광주는 창업 의지 관련 지표에서 비수도권 1위를 기록할 만큼 시민들의 도전 정신이 강한 도시다. 광주시는 이러한 열기를 바탕으로 광주역 창업밸리를 단순한 사무 공간이 아닌 주거와 문화가 결합된 '직주락(Work, Live, Play)' 공간으로 조성해 청년 창업인들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홍나순 광주시 창업진흥과장은 "광주역 창업밸리는 이미 부지 확보와 기초 설계가 완료돼 정부 지정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광주 '창업인프라 삼각벨트'...스타트업 성공시대 연다

스테이지,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스타트업 복합허브센터 3개 거점 초기 보육·기술 고도화·양산 단계별 맞춤 지원... '26.6월 전면 개관

<h4>1 STAGE 스테이지</h4> <p>광주 북구 자미로6번길 45(광주역 창업밸리 내)</p> <p>부지면적 5,503㎡, 건축면적 8,949.58㎡(지상 5층)</p> <p>25.6.19. 개관식 개최, 37개 창업기업, 31개 지원기관 입주</p> <p>초기창업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 지원</p> <p>투자활성화(멘토링, 교육, 포스트투자지원센터), 기술창업 오존이노베이션, 글로벌 진출 지원, 액셀러레이팅 지원</p> <p>준공 '24.12.</p>	<h4>2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h4> <p>광주 북구 일곡동 758-14번지(본촌신단 내)</p> <p>부지면적 6,350㎡, 건축면적 14,416.92㎡(지상 7층)</p> <p>26.2월 준공, 6월 개관, 80개 창업기업 선도제조기업 입주유망</p> <p>제조·창업기반 창업 지원</p> <p>시제품 제작 지원, 창업기업과 제조마스터 기업간 행정 지원, AI 디지털 제조 사업용 역량 강화</p> <p>준공 '26.2.</p>	<h4>3 스타트업 복합허브센터</h4> <p>광주 중동 611-21번지 일원(광주역 창업밸리 내)</p> <p>부지면적 2,970㎡, 건축면적 8,362.13㎡(지상 18, 지상 7층)</p> <p>26.5월 준공, 7월 개관, 29개 창업기업 입주유망</p> <p>기술개발 및 실증지원</p> <p>기술창업기업 Tech-up 지원, 창업기업제품 실증 거점 조성, 빌딩 에너지관리시스템 실증용 구역 운영</p> <p>준공 '26.5.</p>
--	--	---

광주시가 광주역 창업밸리와 본촌신단 일원에 조성 중인 '창업 인프라 삼각벨트' 구성도. (광주시제공)

준비된 입지'라며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해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호남권 최대의 창업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벤처 4대 강국 도약의 핵심 열쇠는 결국 지역 생태계의 자생력 확보에 있다. 이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갖추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 달리고 있는 광주시가 이번 정부 공모 사업의 최적지로 꼽히는 이유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